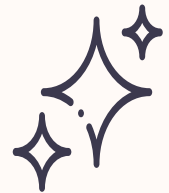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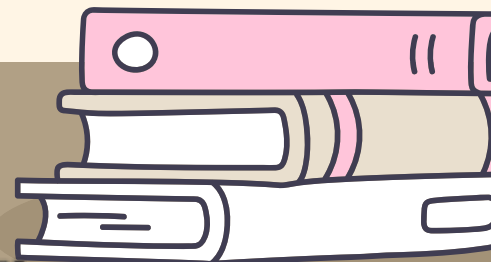


권역별 분야별 시민아카데미



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한
우리모두 자라기, 우리모두 잘하기

○ ver 1. 지역복지분과 ○



강사 소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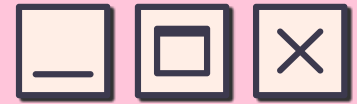
김승수 / 똑똑도서관 관장



- ✓ 사회복지사
- ✓ 똑똑도서관 관장
- ✓ 현 인하대사회복지학과 교수

“복지 = 모두가 행복하게 하는 것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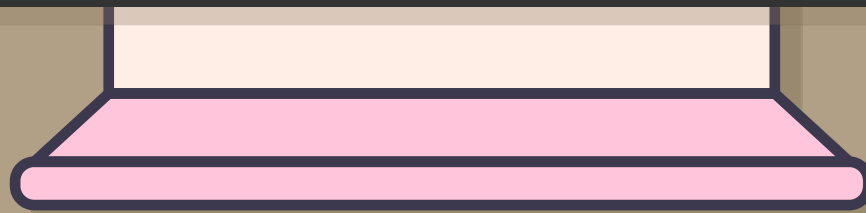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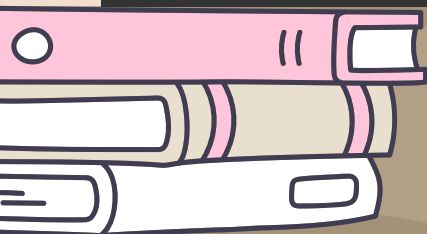
“관리가 아닌 관계를 만드는 활동”



• 권역별 운영일정 •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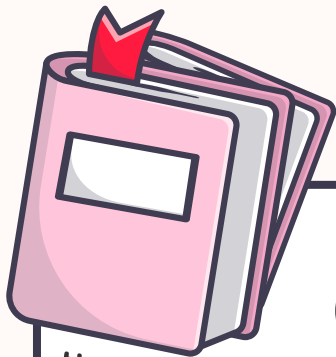
읍면동에서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했어요~

일정	장소	참석인원
04.18. 10:00	평내주민자치센터	47명
04.18. 14:00	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	36명
04.24. 10:00	다산2동주민자치센터	24명
04.24. 14:00	와부도서관	24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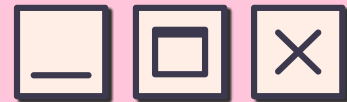


여러분!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.
봉사하시는 분들이 "행복"하셔야
이웃을 "행복"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

복지란?

- ✓ "복지"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게 아닙니다.
- ✓ "복지"는 모두가 "행복"해지는 것 입니다.
- ✓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바로 "복지"
- ✓ 봉사하시는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세요.



"꼰대"는 자기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입니다.

"**충-조-평-판**" 만 조심하면
우리는 꼰대가 안될 수 있어요!



충고

조언

평가

판단

특히! 신뢰가 없는 관계에서는 안돼요!

이웃을 대하실 때, 조심하세요~



이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,
이렇게 4가지 순서대로 생각해 보세요.

1 **관찰**

관찰?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본다.
'생계비로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네?'

2 **고찰**

고찰? 관찰한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.
'머리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나?'

3 **통찰**

통찰? 예리하게 꿰뚫어 본다.
'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지'

4 **성찰**

성찰?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핀다.
'행복해지려면 정말 하고 싶은 걸 해야지'



더 나은 복지공동체를 위한
우리 모두 자라기, 우리 모두 잘하기

Point ☆

- ☑ '봉사'보다 '나의 행복'이 먼저
- ☑ '관리'가 아닌 '관계'를 만드는 활동이 중요!
- ☑ 나의 생각을 강요하는 '곤대'말고~
'관찰, 고찰, 통찰, 성찰'로 수용성 기르기
- ☑ 함부로 '총고, 조언, 평가, 판단'은 No!
'신뢰'를 바탕으로 '좋은 관계'만들기

제13회 찾아가는 시민복지학교



coming
Soon~

권역별 분야별
시민아카데미



다른 분과 강좌도
기대해주세요~!!

